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주업체 ③

(주)아이리스

인터넷과 홈서버 활용 도어락 개발

생활속의 완벽한 보호위해 신기술 개발

(주)아이리스(대표이사 박몽룡)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로 디지털도어락 전문생산업체다. 생활속의 완벽한 보호(방어)를 목표로 다양한 신기술 개발과 최(주)아이리스는 최고의 고객만족 정신으로 이 땅에 풍요롭고 안전한 생활을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몽룡 대표이사는 “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고객이 찾을 수 밖에 없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해 고객 여러분이 보다 편리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리스의 경영철학은 고객에게 완벽한 안전(방어)을 제공하

는 것이 아이리스의 사고와 행동의 기준, 가치관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고객중심경영과 경제적 부가가치를 위한 기업활동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가치경영, 모든 직원 개개인의 노후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식경영, 직원의 탁월한 잠재력을 발견하여 칭찬하고 자신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칭찬경영을 하고 있다.

(주)아이리스에서 생산하는 디지털도어락은 과거 기계식도어락을 대체하는 제품으로 열쇠를 사용하여 개폐하는 방식에서 전자적인 출입인증 방식(비밀번호, 전자인식신호, 생체정보)을 이용하여 door를 개폐하는 제품이다. 세계적으로 출입인증방식(특히 생체정보를 이용한 지문, 장

문, 정맥류, 홍채, 얼굴인식)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인증방식을 실용화하는 기술은 국내가 현재 가장 우수한 상황이다.

디지털도어락은 출입의 편리성, 우수한 보안성, 미려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의해 비약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기술이 발전하여 현재 지문을 이용한 제품이 출시되어 과거 고가(통상 100만원이상)의 지문인식도어락의 보급이 보편화되고 있다.

따라서 (주)아이리스는 홈네트워크 기능이 구현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 무선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해 도어락+홈서버(PC기능) 기능을 갖춘 도어락 개발이 완료됐다.

인터넷을 홈서버에 연결하여 무선통신을 해서 열고 닫힘의

시간을 저장하여 외부에서도 도어락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모바일폰을 이용해 휴대폰에서 바로 도어락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IP카메라로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도록 각종 네트워크에서 무선 집을 장착하여 인터넷과 홈서버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제어기능이 가능하도록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화재발생시 집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문을 열지 못해 질식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부에서는 바로 문을 열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했다. 제품연구를 마친 (주)아이리스는 생산공장도 갖추었다. 이제 본격적인 생산을 할 계획이고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가격대는 30만원선으로 기존 100만원 이상의 고가제품과 경쟁력을 갖추어 대중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오는 3월중순부터 완전한 양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 이전에 500여개 정도 제작해 테스트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회사명 '아이리스' (iris)는 홍채를 말한다. 홍채는 동공 주위에 있는 도넛 모양의 막으로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여 안구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대진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특화된 지적재산권 상담과 각종 세미나 참석, 각종 전시회, 박람회 개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연구소 역할을 해주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재테크 19

내게 맞는 연금보험 고르기

지인을 만나든 컨설턴트의 권고를 받은 고객은 만나는 강조하는 것이 '장수의 위험'이다.

국민연금에 기초생활비를 보장받기도 빠듯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개개인들의 준비가 필수적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대부분 납편이 가입되어 있는데 납편 사망 후 부인이 받게 되는 유족연금 액은 생각보다도 훨씬 적다. 평균적으로 10여년을 더 살게 되는 여성은 자기 이름의 연금보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새해 들어 40 살이 된 K여사. 굳은 결심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막상 가입하려니 너무 복잡하여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딱 맞는 연금보험을 어떻게 골라야 할까?

우선 연금보험의 종류를 살펴보자.

1. 소득공제 연금보험 : 연말정산시 300만원까지 초과기준에 따

라 26만원부터 1백 1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월 25만원을 납입하면 된다. 10년간 가입해야 하고 5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도해약하면 소득공제 환급액을 모두 물어내야 하고 가산세도 내야한다. 연금수령 시 5.5%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장기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강력 추천.

2. 일반연금보험 :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고 연금계시 연령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10년 유지 시 비과세된다.

크게 실세금리형 연금보험과 실적배당형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실적배당형은 시중금리 정도의 이율이 연복리 계산되어 연금수령액이 결정된다.

반면 실적배당형은 변액연금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료의 일부가 펀드에 투자되어 그 수익금이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연금 수령 전에 중도해

약하면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간 투자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며 연금수령시점에서는 원금이 보장된다.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한다면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3. 일시납 즉시연금 : 퇴직금을 받았거나 목돈이 생겼을 때 가입하여 즉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나이 들어 자신의 운용에 자신이 없다면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연금보험의 종류를 골랐다면 다음으로 연금수령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1. 확정연금형 :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연금을 받는 방법

2. 종신연금형 :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

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액은 많지만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종신형을 권하고 싶다. 종신

형도 10년 보증형 20년 보증형을 선택해야하는데, 연금수령자가 사망할 경우 정한 기간 동안의 연금이 유족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K여사는 연금개시나이를 60세로 정하고 남편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소득공제용 연금보험에 일부를 가입하고 나머지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연금수령기간은 종신으로 결정하고 20년 보증형을 선택했다.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를 컨설턴트와 상담을 통해 시원하게 해결하고 나니 당당한 노후생활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무료상담
한경희 컨설턴트
011-9030-7917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3년 이상 보유” 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잘 활용하라

친지 또는 이웃들과 양도소득에 관련 세금상당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주택 같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필요할 때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원칙) :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 원칙 :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보통기를 하기 전 가능한 기간이 있는 경우 : 가능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 :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은 제외) : 멸실된 주택(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 : 보유기간 계산과 무관하다.

-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함)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양도하는 경우 :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재개발 등으로 완공된 주택의 사용기간(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용 받는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산업안전사고 예방

배합기 원료채취 작업중 받침목 파손으로 인한 협착

▶재해발생 개요
PVC파이프 제조업체 원료배합공정 배합기에서 신제품인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작업자 2명이 혼합기에 어시리더의 조작레버를 수동으로 덮개를 개방하고 덮개 불시하강을 방지하기 위해 받침목을 고인후 샘플채취 작업중 받침목이 부러지면서 배합기 덮개에 협착되어 2명이 사망한 재해임.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배합기 토출부에서 원료샘플 채취 작업 실시
배합기 밑에 설치된 톱살부통을 통해 샘플을 채취하고 샘플 채취작업 장소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작업자가 배합기 덮개를 임의로 개폐 후 채취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부적합한 안전지주 사용
배합기 덮개를 지지할 안전지주로서 나무 받침목을 사용하여 덮개의 하중에 적합하지 않은 받침목을 사용하여 안전지주 파손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188 천보자동차공업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정비기술 자랑



대표 강운오

정교한 정비기술과 신뢰도를 통해 고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천보자동차공업사(포천시 동교동 500-8 대표 : 강운오).

넓은 주차공간, 쾌적한 작업공간, 강 대표의 친절한 미소와 빈틈없는 완벽한 정비로 고객의 사랑을 듬뿍받고 있다. 철저한 점검, 완벽하면서도 신속한 수리로 자

만에 들지 않아 고향인 포천으로 유턴한 강 대표는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정비업을 이어온 자동차 특급 정비사로 인정받고 있다.

강 대표가 초창기 이곳에 동지를 틀때만해도 하송리에서 투박위 고개 입구에는 강 대표가 운영하는 캔터 하나 뿐이었다고 한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이제는 차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차량이 크게 증가해 현재는 차량정비업체가 인근에만 해도 10여 개가 넘다고 한다.

수많은 정비업체 중에서 헌신적인 노력과 연구가 뒤따라야 생존할 수 있으며 시시각각 변하는 자동차 정비업에서 위치를 확고하게 다질 수 있다고 한다.

강 대표는 “고객이 의뢰한 모든 차량의 정비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정밀한 점검을 한 후 수리를 시작하고 있다. 경정비를 위주로 하는 공업사이기 때문에 엔진, 전기, 하체 등 모든 계통의 기술력이 요구된다”며 “먼저 마음이 편한 고향에서 초창기부터 인연이 되어온 단골 고객들과 선배들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차장을 위주로 정비하는 것을 보람으로 삼으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교한 자동차 정비기술 신뢰도 ... 고객 차량정비 풍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철저한 점검 신속한 수리

동차를 아끼고 고객 의견을 존중하는 정비업체를 지향하며 최고 보다는 최선을 다하며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연료계통, 오일계통, 냉각계통, 전기계통, 기계계통 등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정비를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고객위주의 정비를 자랑하고 있는 천보자동차공업사는 14년동안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며 고객들의 차량을 정비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강 대표의 차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군 입대를 앞두고 차량정비업에 뛰어들어 다양한 이론과 실무경험으로 군 입대후에도 정비분야에서 인정받아 왔다. 또한 제대후 서울의 자동차 공업사에서 총책임자를 맡고 있을 정도로 자동차 정비에 관해서는 달인이다. 그 후 자동차 정비업을 천직으로 알고 지금까지 몸담아온 것이다.

또한 강 대표는 고객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업사, 실력있는 1급 정비사가 운영하는 공업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업사를 지향하며 강 대표만의 풍부한 노하우를 총동원해 더욱 탄탄하고 수익성있는 공업사를 꿈꾸고 있다.

현재 사회에서 자동차는 필수인 만큼 차량의 타이어, 오일팬누유, 드라이브 샤프트, 머플러 쇼바 스트리스, 엔진오일, 오보미션오일, 브레이크 오일, 파워오일, 가스켓, 라디에이터, 클러치액, 벨트, 배터리, 워셔액 등 소모품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언제나 새로운 기술력은 연구와 노력으로 내 것을 만들고 결합한 자세로 고객들의 어려운 곳을 뛰어넘는 강 대표의 천보자동차공업사가 언제나 고객과 함께 호흡하는 공업사가 되길 기대해 본다.

문의) T.031-541-3228 HP 016)344-3228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철저한 점검, 완벽하면서도 신속한 수리로 자동차를 아끼고 고객 의견을 존중하는 정비업체를 지향하며 최고 보다는 최선을 다하며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국민연금 Q&A

자기 것과 유족연금, 둘 중 많은 것 하나 선택해야 유족연금 없애 국가도 있어

맞벌이 부부였다면 직장연금이나 지역연금이 가입했을 것이다. 연금지급 사유가 되면 당연히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연금을 받던 중 불행히도 한 쪽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먼저 떠난 배우자 몫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가지의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수급권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두 급여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한 개인이 동시에 두 개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사회보험의 원리 때문이다. 물론 큰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중에서 한 쪽이 사망하였을 때 남은 배우자가 죽은 배우자가 받던 연금을 선택한다면 과연 100%를 받을 수 있을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받던 연금액과 같거나 적다. 유족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60%와 가급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라면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50%와 가급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된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40%와 가급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된다.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선택했다면, 연금은 지급사유발생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분부터 지급된다. 참고로 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을 많이 하는 외국에서는 유족연금을 아예 없앤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 국가가 노령연금과 유족 연금이 동시에 발생할 때는 이를 적절히 조정해 지급한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